



유재석이 성실함과 동료들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진행해온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방송 10주년을 12일 자축한다. '런닝맨' 속 김종국, 유재석, 하하의 모습. (왼쪽부터) 사진제공 | SBS

리스너이자 성실맨... 10주년 프로그램만 3개

해피투게더·무도 있는 장수프로그램 사소한 대화 기억... 동료·게스트 챙겨 자기관리의 아이콘·사생활 관리 엄격

과 막내 스태프의 고충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습관이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 "모든 재미는 경청에서부터"

'런닝맨'의 연출자 최보필 PD는 8일 "권위의식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를 유재석의 강점으로 꼽았다. 2016부터 4년 동안 프로그램 연출한 정철민 PD가 2월 CJ ENM으로 이적한 후 새롭게 사령탑에 앉은 최 PD에게 유재석은 '천군만마' 같은 존재이다. 새로운 시도에 "일단 해보자"며 독려한 덕분에 연출자 교체에도 큰 부침 없이 6%대의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최 PD는 말했다.

출연자들의 대화를 기억했다 캐릭터로 살리는 능력도 돋보인다. 이광수의

'배신자', 전소민의 '사랑꾼' 이미지가 이들의 사소한 대화에서 유재석이 꼬집어낸 '부캐'(부 캐릭터)다. 유재석은 현장이 낯선 게스트 출연자들의 사소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며 '분량'을 챙겨주는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제작진은 이를 "프로그램에 생명력을 더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힘"으로 여긴다.

● 성실함으로 완성된 '자기관리'

1991년 데뷔해 30년째 활동하는 동안 완벽한 자기관리의 자세는 유재석이 거둔 모든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유재석이 사생활 관리에 엄격하고, 방송 중에도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면서 대중의 호감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함도 인상적이다. 올해 4월 휴식기를 맞은 '해피투게더'를 위해 그동안 고사해왔던 관찰예능프로그램에 도전하기도 했다. 경력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는 스태프를 세심히 배려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최보필 PD는 "막내 조연출 시절 유재석이 진지하게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곤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돌아봤다. '해피투게더'의 한 관계자도 "날이 덥거나 눈비가 오는 날에도 스태프 뿐 아니라 녹화장에 들어서는 출연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취재진에게 캔커피를 돌리곤 했다"며 "그런 세심함이 프로그램의 구성점으로 역할한 게 아닐까 싶다"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유재석이 또 신기록을 세웠다. 그가 진행해온 SBS '런닝맨'이 12일 방송 10주년을 맞는 덕분이다. 앞서 2003년부터 17년 동안 출연한 KBS 2TV '해피투게더'와 2005년 이후 13년을 이어 방송한 MBC '무한도전'에 이은 또 하나의 기록이다. 이로써 유재석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예능프로그램을 아우르며 1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다. 방송가에서는 특유의 성실함

염정아→김희애→송윤아... '시청률 퀸' 바통터치?

JTBC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주인공 불륜 등 중년의 심리묘사... 19금 등급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주말 밤마다 충격과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로 안방을 뒤흔든 '시청률 퀸' 염정아와 김희애의 바통을 이번에는 송윤아가 이어받는다. 빈틈없는 연기력을 바탕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구축, 중년에 전성기를 다시 맞이한 두 배우의 성공 전략이 송윤아를 통해 또 한 번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윤아가 10일 밤 10시50분 첫 방송하는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극본 박효연)로 돌아온다. 오랜 친구의 갑작스

러운 죽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맞춘 20년 지기 친구들과 그 부부들에 담긴 뜻밖의 사건을 그리는 이야기다. 총 17부작인 드라마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방송 전 이미 '전 회차 19금 등급'까지 선연해 주

목받고 있다.

'우아한 친구들'은 20년차를 두고 각각 별어진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극을 펼친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비밀과 균열, 사랑과 불륜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설정도 있다. 표현 수위부터 추리력이 필요한 이야기, 중년의 심리 묘사에 집중한 설정까지 앞서 성공한 'SKY 캐슬'의 염정아, '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일군 성공 공식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 출발한다. 덕분에 방송 전부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이들 작품과 배우들을 연결해 미리 해석하고 전망하는 기대 섞인 의견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송윤아는 남편 역의 유준상을 비롯해 배우빈, 한다감, 김성오, 김원혜 등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중심점 역할을 할 정선과 의사 역이다. 중

학생 아들을 두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린 완벽주의자이지만 알고 보면 큰 야망만큼 외로움도 많은 입체적인 인물이다. 최근 출연한 영화 '중인'이나 드라마 '시크릿 마더'에서 보인 모습과 전혀 다른 연기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송윤아는 '우아한 친구들'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제작진을 통해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만난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거운 생각이 교차할 때 만난 드라마"라며 "다시 (연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용기이자 희망의 작품"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연출을 맡은 송현욱 PD는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앞둔 중년들이 위기 속에 침몰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려고 발버둥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세븐틴 '헝가리' 닷새만에 100만장...대박 조짐

빌보드 '소셜 50' 2위 등 해외서도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행보가 심상찮다. 2015년 데뷔한 후 꾸준히 성장해온 이들이 최근 국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데뷔 5년차를 맞으면서 "한계 없는 성장"의 의지를 각종 수차례 써가고 있다.

세븐틴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일곱 번째 미니앨범 '헝가리'로 닷새 만에 판매량 101만장을 달성하며 밀리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발매 이후 일주일간 판매량을 집계

하는 이른바 '초동 판매량'은 109만7891장에 달했다. 초동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다.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도 8일 현재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현재 가요계 '여풍'이 강세인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다. 노래는 리듬감 있고 신나는 분위기를 강조해 여름을 겨냥한 '서머 송'으로 제격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수록곡 '마이웨이' '좋겠다' '어른아이' 등도 여전히 차트 50위권을 지키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앨범마다 전작의 기록을 크



게 뛰어넘으며 빠른 성장세를 드러내는 이들은 해외에서도 남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며 한류그룹으로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빌보드의 '소셜 50' 차트 2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7일 일본 오리콘의 주간 앨범 랭킹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가수로는 2007년 11월 미국 보이그룹 백스 트리트 보이즈의 '언브레이크블(Unbreakable)'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세븐틴은 기세를 몰아 9월9일 일본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24H'를 선보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4

양준일 또 루머...이번엔 친딸 논란



양준일

가수 양준일이 이혼 및 재혼설 등 루머를 해명하고도 또 후폭풍을 맞고 있다. 양준일은 7일 MBC 예브리워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한국에서 결혼한 아내와 꿈에서 생활하다가 이혼했다고 직접 밝혔다. 최근 '전 부인과 사이에서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전 부인이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혀 양준일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증폭됐다. 하지만 방송을 통한 해명 직후인 8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양준일은 "딸은 전 부인이 재혼해 낳았다"고 설명했다. '친딸이 맞다'는 추가 의혹이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김건모가 고소한 여성 '무고죄' 증거 불충분



김건모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로 판단한 결과 무고를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샤이니 태민, 안무 연습중 손목 부상



태민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이 손목 부상을 입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8일 "태민이 최근 안무 연습 중 넘어져 우측 손목 부근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통원 치료 중인 태민은 회복 경과에 따라 컴백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당초 태민은 이달 초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해왔다. 한편 샤이니의 또 다른 멤버 윤은은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20일 제대한다. 8일 말년휴가를 나온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의 결정으로 부대 미복귀 제대한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9월2일 예정대로 개최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9월2일부터 12일까지 예정대로 열린다. 다만 초청작 편수와 행사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영알베르토 바르베라 예술감독은 8일 "공식 부문 등 작품 편수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며 "유럽 작품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지역 영화로 공평히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5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개최를 확정했다. 공식 초청작은 이달 28일 발표한다.